

원료 수입을 위한 치즈공장 합작 투자 설립은 저지돼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의 기대와 무역수지 흑자, 그러나 응어리진 낙농인의 가슴은……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상 그 어느때 보다도 희망에 부풀 기대에 차있다.

국민적 대화합에 의한 정치적 민주화와의 기대와, 무역수지 흑자로 외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호황을 맞아 명실 상부한 화합의 정치, 선진국형 정치, 경제적인 선진국대열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밝은 내일을 설계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다함께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국민적인 희망찬 대열에 동참함을 느끼지 못하고 답답한 가슴으로 응어리져 있는 낙농인이 있으니 세상은 참 고르지 못하다.

6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낙농진흥정책에 부응, 우리 100만 축산가족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국의 야산과 방치되어 온 오지를 찾아 습지와 돌무더기를 명절도 잊고 개간, 옥토로 바꾸었다.

우분을 시비, 비료없이 농사 짓는 우리 고유의 농사법을 재현, 산성화를 막고 전국도의 생산지 확충에 앞장섰으며 신선한 우유와 쇠고기를 무공해로 생산 공급하여 국민 체위의 향상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정부의 시책을 굳게 믿고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축산에 몸담은지 15년,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의 주름살은 내 얼굴을 스스로 거울에 비춰 보기도 싫게 많이 생기고 말았으나, 하늘은 무심치 아니하여 70년대 후반 부터 80년대 초반, 축산분야 일기시작했다.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듯하여 행정당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을 배가하여 축산의 작은 주춧돌이 되기로 결심하였는데 무분별한 정부의 분유수입과 쇠고기의 수입, 더 나아가 약삭빠른 상훈이 번득인 쇠뼈다귀의 수입까지 무제한 허용하여 천신만고 끝에 이룩한 축산기반과 낙농인의 소박한 꿈은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첫째로 84년부터 86년까지의 분유, 전지분유, 유당, 카제인, 유장등의 유제품 수입 현황을 보면 71,136t(톤) 금액으로는 6억8천8백불, 우리 나라 돈으로는 5천5백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수입하였으며,



장 일 광
장양 목장



축산인의 자발적인 방법으로 자구책을 강구, 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때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축산의 꿈을 산산 조각내

둘째로 쇠고기 수입현황을 보면, 82년부터 85년까지 4년간만 하여도 17만여톤, 금액으로는 2천4백여억원 쇠뺨다귀, 육우, 젖소의 수입량이 7백 7십억원 도합 8천6백7십억원의 기하학적인 금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축산인의 자발적인 방법으로 자구책을 강구해 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때, 이러한 무분별한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퇴직 공무원과, 영농 후계자, 노년에 조용히 자연과 함께 땅과 가축을 사랑하며 살려던 소박한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보기 싫고 귀찮은 존재의 소가 되어버려, 노력한만큼의 결실을 거짓없이 돌려주지 못하는 소와 땅으로 탈바꿈하였다.

맛없는 수입쇠고기를 국민들에게 많이 먹게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쇠고기 맛까지 변질시켜 놓은 정책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아무리 착하고 순진하고 양반들만이 모인 축산인 집단이라고 하여도 이 어찌 분노치 아니할 수 있겠는가.

뒤늦게나마 행정 당국에서는 실책을 인정하고 다각적인 수급책을 강구하여 미흡하지만, 겨우 안정기를 맞은 듯한 이때에도, 그 결과는 불완전하여, 금년 6월말 현재의 우유 성수기에도 유제품 재고는 1만톤에 가깝고 비수기인 여름철이 지나게되면 1만7천여톤이 쌓여 심각한 유제품 재고현상은 축산기반을 다시한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등장시키고 있다. 각 유업체와 낙농인들은 당연히 선진국가처럼 정부 차원의 낙농 조절 위원회를 구성, 집유의 일원화, 검사의 공영화를 먼저 시행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대안과 정책적 비전을 제시치 못하면서 또 다시 80년대 초의 수입 망령이 살아나는 “치즈 합작공장 건설”로 유제품 수입을 개방하겠다는 이 아니 경악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부는 영원히 믿을 수 없는 축산정책만 하는 정부란말인가”분유를 직접 수입할 수가 없으니 눈가리고 아웅적인 치즈 원료를 수입하겠다는 말인가.

치즈 1kg(키로그램)을 생산하는데 원유가 11kg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원유 수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제아무리 돈이
남는 장사라도 국
민들을 도탄에 빠
지게 하는 것은 기
업의 윤리에 어긋
나

전임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유제품과 쇠고기의 수입은 절대로 하지 아니한다고 몇번이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하였었다 현직 장관께서는 농정출신 장관으로서 이제는 안심하고 축산에 임하겠구나하고 장관의 취임을 마음속으로 축하하였는데 어찌하여 아무 말씀도 안계시는지.....

더욱 가공할 일은 기업 윤리를 저버리는 재벌 롯데의 윤리관을 개탄한다.

제아무리 돈이 많이 남는 장사라하여도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하는 장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윤리인 것이다. 치즈수입 합작공장 건설건은 2년여전부터 서울의 S유업과 장기간동안 상담이 있었으나 국내 유제품의 체화와 축산인의 입장을 고려, 기술제휴가 아닌 원료 수입의 합작은 불가하다고 거절하였다는데, 어찌하여 80% 원료 수입, 15% 이익 보장의 합작공장 건설에 합의 하였단 말인가.

롯데가 진정 국내 굴지의 재벌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면 이 건설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축산인들은 다시는 속을 수 없다”

100만 축산인의 심정을 밝히노니 축산 가족의 희생 위에 돈만 벌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치즈 합작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재의 심정을 호소하노니 정부 당국에서는 본 합작공장건설을 백지화하고 국내 치즈 공장을 육성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동차 몇대 더 팔고 롯데 돈벌이 시켜주는 치즈 공장 건설 계획은 취소할 것으로 믿는다.

롯데는 지금이라도 대재벌의 윤리를 되찾아 국민적인 화합의 대열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불길하게 발전될 경우, 우리 축산인들은 본질적인 생존권을 수호 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은 만천하에 공개하는 바이다.